

주간 통일정세

2018-13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3.24	종교·시민단체 “남북·북미회담, 평화통일 마중물 되길”(연합뉴스)
	3.26	“민족의 부활은 통일”...NCCK-조그런,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연합뉴스)
	3.29	조계종 “남북정상회담 합의 환영...비핵화·평화정착 계기 되길”(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	3.24	‘평양 공연’ 사전점검단 2박 3일 방북 마치고 오늘 귀환(연합뉴스)
	3.25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광주교육청, 청와대에 제안(연합뉴스)
	3.29	13년 만의 평양공연...선발대 전세기편으로 방북(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2018. 3. 24.

■ 종교·시민단체 “남북 북미회담, 평화통일 마중물 되길”(연합뉴스)

- 88개 종교·평화·시민단체 모임인 ‘3·24 평화촛불 추진위원회’가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함.
- 이들은 “남북과 북미 대화를 계속해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미는 군사연습에서 선제공격 같은 공세성을 제거하고 규모와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함.
- 이어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며 “이어지는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이뤄 통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2018. 3. 26.

■ “민족의 부활은 통일”...NCCK-조그련,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연합뉴스)

-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이 부활절(4월 1일)을 앞두고 공동기도문을 26일 발표함.
- 두 단체는 공동기도문에서 “우리 민족의 부활은 조국통일”이라며 “모처럼 만에 이 땅에 찾아온 평화의 기운을 살려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원했으며, 또 “거룩한 행실과 순결한 삶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봉헌의 희생제물을 바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기도한다”고 밝힘.
- 한편, NCCK는 이날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민족공동체 역사의 끝이 아니라 화해와 통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 일상 속에서 평화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NCCK는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우울한 갈등과 대립에서 뛰쳐나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함.

2018. 3. 29.

■ **조계종 “남북정상회담 합의 환영…비핵화 평화정착 계기 되길”(연합뉴스)**

- 대한불교조계종은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힘.
- 조계종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존과 상생을 근간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데 튼튼한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와 함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나. 국제사회

■ **특이사항 없음.**

2. 남북 교류협력

2018. 3. 24.

■ **‘평양 공연’ 사전점검단 2박 3일 방북 마치고 오늘 귀환(연합뉴스)**

- 우리 예술단의 4월 초 평양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이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24일 베이징을 거쳐 귀환함.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공연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사전점검단은 지난 22일 방북, 북측 관계자들과 예술단 공연 일정 및 구성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또 예술단의 공연 무대인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을 찾아 조명과 음향 등의 시설을 점검했으며 예술단 숙소로 사실상 확정된 고려호텔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짐.

2018. 3. 25.

■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광주교육청, 청와대에 제안(연합뉴스)**

- 광주시교육청은 수학여행단 방북 등 남북교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준비 위원회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는데, 이 제안서는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 교육감 단 방북, 남북 교원 간 학술 교류,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생 수학여행단의 방북을 제안했는데, 금강산·개성·백두산 등 북한의 명소를 학생들이 찾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임.
- 광주시교육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남북교육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4월 중 지역의 전문가들로 기획팀을 구성해 남북 교육교류의 방향, 단기·중장기 과제, 실행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2018. 3. 29.

■ 13년 만의 평양공연...선발대 전세기편으로 방북(연합뉴스)

- 공연장 설치를 위한 기술진 70여 명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이스타항공 여객기와 에어인천 화물기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서해직항로로 평양으로 들어가며, 이들은 우리 예술단이 공연할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 무대 장치를 설치하고 시설을 점검함.
- 무대에 설 가수들을 비롯한 본진은 이틀 뒤인 31일 오전 같은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방북할 계획이며, 방북단은 태권도 시범단 20여 명과 공연 스태프, 취재진, 정부지원 인력까지 포함해 총 190여 명으로 꾸려졌음.
- 이번 공연 무대에는 가수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김광민 등 총 11명(팀)이 설 예정이고,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있을 첫 공연은 우리 예술단 단독으로 2시간가량 진행하고, 3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펼쳐질 두 번째 공연은 북측 예술단과 함께 꾸밀 예정임.
- 태권도 시범단은 1일 평양 태권도전당에서 단독 공연을 하고 2일 평양대극장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할 계획이며, 방북단은 두 차례의 공연과 태권도 시범을 마치고 3일 밤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귀환함.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3.24	北신문 “부르주아 사상문화, 황금만능·약육강식 설교”(연합뉴스)
	3.25	北선전매체 “美, 한미FTA 통상압력…날강도적 본색” 주장(연합뉴스)
	3.26	北리중혁 “美, 한반도 평화 위해 진지한 태도 임해야”(연합뉴스)
		北신문, ‘사상전’ 잇단 강조…“원수들 흥심 변하지 않아”(연합뉴스)
		조선신보 “북미대결 총결산, 평화적 달성이 김정은 구상”(연합뉴스)
3.28	김정은,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비핵화 등 한반도 해법 논의(연합뉴스) 김정은, 중국서도 과학원 시찰…리설주와 ‘VR 체험?’(연합뉴스)	
군사	3.24	38노스 “풍계리 굴착작업 안보인다”…北 핵실험준비 중단했나(연합뉴스)
	3.28	日언론 “北, 이달초 풍계리 핵실험장 군부대 절반 이동 명령”(연합뉴스)
		NYT “북 영변 새 원자로 포착…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될 듯”(연합뉴스)
경제	3.27	美국무부 “북러 간 비공식 무역액 年 2억6천만달러”(연합뉴스)
	3.30	작년 EU·북한 무역규모 1천800만 유로…대북제재로 급감(연합뉴스)
사회 문화	특이사항 없음.	
외교 국방	3.27	‘북핵이 본토 위협’ 미국 여론 67%→50% 하락(연합뉴스)
	3.28	미국인 3분의2 “트럼프-김정은 만남 결정에 찬성”(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주민·인류위해 바르닐할 가능성 커…만남기대”(연합뉴스)
		北매체, 북중 정상회담 대대적 보도…노동신문 사진만 60장(연합뉴스)
	3.29	北신문, 日겨냥 “대결에 미쳐날뛰면 영원히 평양문턱 못 넘어”(연합뉴스)
바흐 IOC위원장 평양행, 베이징공항서 확인…김정은 면담 가능성(연합뉴스) 北, 40분짜리 ‘김정은 방중 영상’ 공개…“혈연의 정 넘쳐”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3.28	중국 비공식방문 (정상회담, 과학원 방문)	최룡해, 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리용호, 조용원, 김성남, 김병호, 리설주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3. 28.

■ 김정은,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비핵화 등 한반도 해법 논의(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 중국 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특별열차 편으로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으며, 최룡해·박광호·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조용원·김성남·김병호 당 부부장 등 고위 간부들이 동행함.
-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환영 행사를 한 뒤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왕후닝(王浩<삼수변+廬>寧) 상무위원이 배석했으며 북측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이 참석함.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면서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으며,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함.
- 시 주석도 “올해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북한이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화답함.

■ 김정은, 중국서도 과학원 시찰…리설주와 ‘VR 체험’?(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의 방중 보도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27일 중국과학원에서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2012년) 이후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돌아보시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핵물리·우주공간·농업·에너지 등 자연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물을 돌아봤으며, 방명록에 “위대한 인방(이웃나라)인 중국의 강대함을 알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현명한 영도 하에 더 훌륭한

과학의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친필로 기록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중국과학원 방문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해양과학탐사 관련 전시 코너에서 가상현실(VR) 헤드셋으로 보이는 기기를 체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김 위원장이 이틀이 채 되지 않는 베이징 체류 기간에 과학연구 기관을 ‘꼭 집어’ 방문한 것은 과학기술 발전을 ‘자력자강’을 통한 국가발전 핵심 열쇠로 내세우는 그의 최근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3. 26.

■ 北리종혁 “美, 한반도 평화 위해 진지한 태도 임해야”(연합뉴스)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8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참석한 리종혁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장은 26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은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이어 “북한에 적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미국의 정책과 헛된 제재를 끝낼 때가 됐다”며 미국을 비판함.
- 그는 북한이 위협과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평화로운 신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남북대화와 통일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다고 덧붙임.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3. 24.

■ 北신문 “부르주아 사상문화, 황금만능·악육강식 설교”(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4일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의 박형섭 실장이 쓴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의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하여 “민족음악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주아 반동 문화를 짓눌러버리기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함.

- 특히 “제국주의 원수들은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퍼뜨림으로써 인민들의 민족성을 흐리게 하고 사상 의식을 마비시켜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날뛰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자부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넘겨다보지 않는다”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상 의식을 지닌 인민 대중은 황금만능과 약육강식, 남의 식, 남의 풍을 설교하는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배척한다”고 주장함.

2018. 3. 25.

■ **北선전매체 “美, 한미FTA 통상압력…날강도적 본색” 주장(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5일 ‘예속과 약탈의 올가미-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올가미로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엮어 매 놓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서 통상압력을 가하여 각 계층의 저주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의 후안무치한 날강도 적 본색이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자유무역협정 역시 남조선에 더욱 깊숙이 썩워놓은 예속의 굴레”라고 강변함.

2018. 3. 26.

■ **北신문, ‘사상전’ 잇단 강조…“원수들 흥심 변하지 않아”(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6일 ‘사상전의 힘찬 포성으로 온 나라가 혁명열, 투쟁 열로 들끓게 하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사회주의를 좀먹고 혁신과 전진을 저해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와 현상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야 한다”고 주문함.
- 신문은 “엄혹한 난국을 용감히 헤치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들을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온 나라에 혁명신념, 혁명 투지, 혁명 배짱을 백배해 주는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강도 높이 벌려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오늘의 총공세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며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수들의 흥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조선신보 “북미대결 총결산, 평화적 달성이 김정은 구상”(연합뉴스)

- 조선신보는 26일 ‘<격동의 조선반도1> 평화적 방법으로 핵 대결전을 총결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 핵무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은 2017년 조선(북한)의 드세찬 공격전은 조미(북미) 핵대결전의 총결산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서 “그 목표를 전쟁의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최고영도자(김정은)의 구상이었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작년 11월 29일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이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의 구도가 완화와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핵무기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성공을 확인하신 원수님(김정은)께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은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며 “미국이 조선과 협상하기 위한 전제는 그때 이미 제시되었다”고 밝힘.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3. 24.

■ 38노스 “풍계리 굴착작업 안보인다”…北 핵실험준비 중단했나(연합뉴스)

-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올해 3월 2일과 17일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남북, 북미 대화무드와 함께 공사가 상당히 둔화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힘.
- 38노스는 “굴착 공사가 눈에 띄게 더뎠고 관련 인부도 2주 전보다 줄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시기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을 포함해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 진전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함.
- 38노스에 따르면 올해 3월 2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실험장 서쪽 갭구에 채굴수레와 상당한 양의 준설 토사 등 굴착 흔적이 있었지만 이달 17일 위성사진에서는 굴착작업 증거뿐 아니라 지휘센터 근처의 보조공간과 관리구역 어떤 곳에도 인력, 차량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2018. 3. 28.

■ **日언론 “北, 이달초 풍계리 핵실험장 군부대 절반 이동 명령”(연합뉴스)**

- 일본 아사히신문은 28일 북수의 북한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핵실험장 주변에 주둔하는 북한군 19연대에서 갱도 굴착작업을 하는 4개 대대 중 2개에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함.
- 아사히에 따르면 19연대의 인력은 1천명 수준으로, 이동 명령이 이행되면 150명 가량의 기술 대대와 70명의 경비 대대만 남게 됨.
- 한편 북한 관계 소식통은 아사히에 “풍계리(핵실험장)의 폐쇄는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된다면 실험을 재개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전함.

■ **NYT “북 영변 새 원자로 포착…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될 듯”(연합뉴스)**

-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군사정보 저널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달 25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북한의 새로운 원자로가 몇 년에 걸친 공사 끝에 가동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함.
- 이 보고서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 영변 핵 단지에 있는 실험용 경수로(ELWR)의 비음축성 가스를 배출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굴뚝에서 처음으로 연기가 관측됐으며, 이에 북한이 정식 가동을 위해 가스 배출로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NYT는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라면 이 원자로가 회담의 중심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함.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8. 3. 27.

■ 미국무부 “북러 간 비공식 무역액 年 2억6천만달러”(연합뉴스)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러 사이에 무역거래를 위한 교량 건설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26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간 비공식 무역액이 불법 유류를 포함해 연간 2억6천만달러 상당 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함.
- 애덤스 대변인은 또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은 연간 1억5천만~3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북러 간 공식 무역액은 연간 8천만달러이지만 불법 유류를 포함한 비공식 무역액은 2억6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함.

2018. 3. 30.

■ 작년 EU·북한 무역규모 1천800만 유로…대북제재로 급감(연합뉴스)

- 30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발표한 ‘2017년 EU의 무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북수출은 1천264만3천21유로, 대북 수입은 509만373유로를 각각 기록해 무역 규모가 1천773만3천394유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6년의 무역 규모 2천420만5천2유로에 비해 26.7%나 감소한 것임.
- 특히 지난해 대북수출이 2016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32%)나 줄어(1천859만4천420 유로→1천264만3천21유로) EU의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과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작년 EU의 대북 수입도 전년에 비해 9.3%(561만582유로→509만373유로) 감소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3. 27.

■ ‘북핵이 본토 위협’ 미국 여론 67%→50% 하락(연합뉴스)

-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4~19일 미국인 유권자 1천1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 본토에 대한 북핵위협을 매우 또는 극히 걱정한다는 미국인의 비율은 지난해 10월 67%에서 50%로 낮아짐.
-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도 69%에서 53%로 떨어짐.
-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한 지지율은 34%에서 42%로 올라감.
- 전체 응답자의 48%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 응답은 29%에 그침.

2018. 3. 28.

■ **미국인 3분의2 “트럼프-김정은 만남 결정에 찬성”(연합뉴스)**

- 2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22~25일 성인 1천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7%포인트) 결과 응답자 62%가 북미정상회담 결정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그 절반인 31%가 선택함.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직전 조사인 지난해 11월 (35%)보다 8%포인트 오른 4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반대한다’는 답변이 49%로 더 많았음.
- 북미정상회담 결정으로 긴장이 완화되면서 ‘북한이 미국에 당면한 위협’이라는 응답은 50%(지난해 9월 조사)에서 39%(올해 3월 조사)로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조사에서 2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북한 상황을 오직 경제적, 외교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지난해 9월 43%에서 올해 3월 63%로 20%포인트 급등함.

■ **트럼프 “김정은, 주민·인류위해 바른일할 가능성 커…만남기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오전(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밤에 중국의 시진핑으로부터 그와 김정은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김정은)이 나와 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전까지 “유감스럽게도 최대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또한 “지난 수년간, 그리고 많은 정부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아주 조그만 가능성조차 없다고 모든 이가 말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해 바른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강조함.

나. 북·중 관계

2018. 3. 28.

■ **北매체, 북중 정상회담 대대적 보도…노동신문 사진만 60장(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8일 특집판(8면)을 발행하면서 1면부터 7면까지는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기사로 편집함.

- 신문은 1면 기사 제목으로 ‘조중(북중) 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추동한 역사적 사변’이라며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첫 북중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함.
- 이번 정상회담 관련 사진은 ▲ 인민대회당 환영식 ▲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 ▲ 시진핑 주재 인민대회당 만찬 ▲ 조어대 국민관 오찬 회동 ▲ 김정은 중국 과학원 방문 등의 장면으로 60장이나 게재했으며, 사진들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악수와 건배를 하는 장면을 비롯해 북중 친선관계를 나타내는 모습들 위주로 배치됨.

2018. 3. 29.

■ **北, 40분짜리 ‘김정은 방중 영상’ 공개…“혈연의 정 넘쳐”(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29일 오후 특별열차가 중국으로 향하는 모습에서부터 회담과 연회, 참관 등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방중 활동을 담아 편집한 약 4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함.
- 특히 열차가 단둥역에 도착해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의 영접을 받는 장면, 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이 21대의 경찰 모터사이클의 호위를 받으며 베이징 시내를 달리는 모습, 의장대 열병식 장면 등 중국 측이 환대하는 모습과 인민대회당에서의 환영 의식, 회담장에서의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발언 모습, 연회장에 마련된 대형 화면에서 과거 두 나라 최고지도자가 만나는 장면을 편집한 영상등을 방영함.
- 아나운서는 양국 정상 부부 4명이 오찬하는 장면에 대해 “가정적 분위기에서 마주앉은 오찬의 장은 시중 혈연의 정이 차 넘쳤다”고 소개하기도 함.

다. 북·일 관계

2018. 3. 29.

■ **北신문, 日겨냥 “대결에 미쳐날뛰면 영원히 평양문턱 못 넘어”(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9일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보이기 전에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일본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을 비난하며 “대세에 역행하며 대결에 미쳐 날뛰는 자들은 영원히 평양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처사’ 제목의 논평에서 “아베 일당이 남조선 당국과 미국 것들에게 쫓라닥질(헐뜯는 짓)을 해대며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훼방질하고,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끼어들려고 헤덤비고 있지만, 그것은 대세의 흐름

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둔한 짓”이라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이어 “현 정세 흐름이 누구에 의해 마련되었는지도 모르고 제재·압박에 대해 고아대는 아베 일당은 저들의 대결 망동이 고립과 자멸을 더욱더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비난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3. 29.

■ 바흐 IOC위원장 평양행, 베이징공항서 확인…김정은 면담 가능성(연합뉴스)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9일 수행원 10여 명과 함께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으며 오후 2시 평양행 고려항공 JS25편에 탑승함.
- 베이징 소식통은 “바흐 위원장 방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IOC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북한의 국제대회 출전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지난달 12일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1월 20일 IOC와 한국, 북한의 올림픽 참가회의에서 바흐 위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바흐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3.25	농업·철강 지키고 車 양보…한미FTA 사실상 타결(연합뉴스)	
	03.27		美 항공모함 루스벨트호, 한반도 포함 7함대 작전구역 진입(연합뉴스)
	03.29		백악관, 한미FTA 개정에 “미국 노동자·기업에 중대한 승리”(연합뉴스)
	03.30		트럼프, 한미FTA 개정 “北과 협상타결 이후로 미룰수도 있을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3.28		中외교부 “양제츠, 29~30일 방한…한반도 문제 논의”(연합뉴스)
	03.29		中, 남북정상회담 4월27일 확정 환영…“화해·협력 추진지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3.28		군사력 강화하는 日…사상최대 52조 6천억원 방위예산 국회통과(연합뉴스)
	03.29		日관방, 남북정상회담 일시 합의에 “한국측에 경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03.24		美中 무역전쟁 긴급 전화...류허 “중국, 잘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03.27	나바로 “무역전쟁의 긴장 끌어 올리는 것 멈춰야” (연합뉴스)	
	03.28		美고위급 연쇄 대만행...中 “우롱하 는 처사” 강력 반발(연합뉴스)
		미 ‘슈퍼 핵항모’ 칼빈슨 전단, 남중국해 합동훈련 마무리 (연합뉴스)	
	03.29		中, 美301조 조사 정조준...“어떤 보 복 옵션도 배제않겠다” 경고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3.25		日, 북미회담 조건으로 ‘중거리미사 일·납치문제 해결’ 美에 제시 (연합뉴스)
	03.29		日 아소 부총리 “美와 양자협상 단 호히 거부”(연합뉴스)
			‘재팬패싱’·관세폭탄에 아베, 美 달 려가지만...미일외교 ‘떡구름’(연합뉴 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3.26	트럼프,미 주재 러 정보원 등 60 명 추방...총영사관 폐쇄도 추진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3.25		“중일, 5월정상회담서 센카쿠 충돌방지용 핫라인 설치 합의” (연합뉴스)

			日, 中견제 아시아 군사영향력 확대...스리랑카軍 능력구축 지원 (연합뉴스)
	03.26	中언론 “日, 일대일로 협력 모색”...견원지간 밀착설 사실일까 (연합뉴스)	
	03.27		전쟁 반성 잊었나...日, 육상자위대 총괄하는 통합사령부 신설 (연합뉴스)
	03.28		아베 “김정은 방중’ 정보분석 중... 중국에 설명 요구할 것”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03.28	중국·러시아, 유엔 예산 쥐어짜며 세계 인권수호 방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03. 25.

■ 농업 철강 지키고 후 양보…한미FTA 사실상 타결(연합뉴스)

-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보임.
- 당초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힘.
-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한미FTA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함.

2018. 03. 27.

■ 美 항공모함 루스벨트호, 한반도 포함 7함대 작전구역 진입(연합뉴스)

- 27일 미 해군 7함대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가 한반도를 포함하는 미 해군 7함대 작전구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
-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는 동태평양을 관할하는 3함대 소속으로 동맹국 해군과 연합훈련 등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7함대는 밝힘.
- 작년 11월에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니미츠호(CVN-68)와 함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며 북한에 대해 고강도 무력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이번과 같이 항공모함 3척이 공동훈련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임.

2018. 03. 29.

■ **백악관, 한미FTA 개정에 “미국 노동자 기업에 중대한 승리”(연합뉴스)**

- 백악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가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과 부품 제조업체, 제약 회사들에 좋은 결과가 됐다고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들에 큰 거래이고 중대한 승리”라고 말함.
- 그는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극적으로 개선된 한국과의 통상 협정을 확보했다”면서 “한미FTA 개선 협상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 손실을 줄이는 변화를 얻었고, 한미FTA가 미국인의 번영과 안보에 좋은 거래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말함.
- 그는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한 자동차의 한국 수출 허용량을 2배 늘리는 조치로 현실적인 수출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문제가 하룻밤에 생기게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이것(합의)은 분명히 무역 적자를 줄이도록 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답함.

2018. 03. 30.

■ **트럼프, 한미FTA 개정 “北과 협상타결 이후로 미룰수도 있을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주제로 한 대중 연설을 통해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이유에 대해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very strong card)’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발언함.
- 이는 대북 비핵화 협상과 한미FTA 개정 협상을 연계하고, 북한과의 협상타결 이후로 한미FTA 개정의 공식 완료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미 언론은 분석함.

나. 한·중 관계

2018. 03. 28.

■ 中외교부 “양제츠, 29~30일 방한…한반도 문제 논의”(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29~30일 한국정부의 초청을 받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다고 28일 공식 발표함.
-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 위원이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정의용 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은 주로 중한 관계 추진 및 한반도 문제의 적절한 해결 등에 대해 한국 측과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 양 위원은 방한 기간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2018. 03. 29.

■ 中, 남북정상회담 4월27일 확정 환영…“화해·협력 추진 지지”(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확정된데 환영을 표명하면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데 대한 중국 입장을 요청하자 “우리는 환영한다”면서 “남북 양측의 노력에 찬성하며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 양측의 대화 전개와 화해 및 협력 추진을 지지한다”고 말함.
- 루 대변인은 “이는 양측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한반도 정세 완화, 지역 평화와 안정 촉진에도 유리하다”면서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대화가 다시 한반도의 주요 흐름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은 대화 추세와 평화 국면이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유관국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대화와 담판을 촉구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하길 호소한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8. 03. 28.

■ 군사력 강화하는 日…사상최대 52조6천억원 방위예산 국회통과(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매년 방위비를 늘리며 무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본 참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을 28일 가결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보다 0.3% 증가한 97조7천128억엔(약 991조2천279억 원) 규모로 통과된 예산안으로,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보다 1.3% 증가한 5조1천911억 엔(약 52조6천600억 원)의 방위비가 포함됨.
- 예산안에는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전체 방위비 예산으로는 6년째 증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기본설계 비용과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취득비 등이 포함됨.

2018. 03. 29.

■ 日관방, 남북정상회담 일시 합의에 “한국측에 경의”(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남북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4월 27일 열기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측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자 “한국측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등)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힘.
- 스가 장관은 “일본은 계속해서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미를 비롯한 모든 기회를 통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3. 24.

■ 美中 무역전쟁 긴급 전화·류허 “중국, 잘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 통상정책 당국자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劉鶴) 중국 부총리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간 무역갈등 현안을 논의함.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4일 므누신 장관은 류 부총리에게 중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한 미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을 전달함.
- 이에 대해 류 부총리는 미국의 최근 조치는 “국제무역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중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 나아가 세계의 이익에도 이롭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며 “중국은 잘 준비하고 있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실력이 있다”면서 “양측이 이성을 갖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2018. 03. 27.

■ 나바로 “무역전쟁의 긴장 끌어올리는 것 멈춰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중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1천억 달러(약 10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밝힘.
-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로 평가받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은 이날 블룸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올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손실에서 1천억 달러의 감소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지난해 전체 적자액의 약 3분의 1 수준만큼 줄이려는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함.
- 그는 세계 2대 경제권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세계 경제 전체가 휩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무역전쟁을 언급하면서 긴장을 끌어올리는 일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주의자이지만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무역에 의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라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함.

2018. 03. 28.

■ **美고위급 연쇄 대만행...中 “우롱하는 처사” 강력 반발(연합뉴스)**

- 미국의 ‘대만여행법’에 대해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 고위인사들의 대만 방문이 줄을 잇고 있음.
- 28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여행법’의 핵심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만을 방문 하여 전날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만나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 방안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그의 대만 방문은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여행법 서명 이후 대만을 찾은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이안 스테프 상무부 제조업담당 부차관보에 이어 미 고위급 인사로는 세 번째임.

■ **미 ‘슈퍼 핵항모’ 칼빈슨 전단, 남중국해 합동훈련 마무리(연합뉴스)**

- 태평양함대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11일부터 태평양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 강습전단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남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진행한 합동훈련을 23일 끝냈다고 밝힘.
- 이 훈련에는 칼빈슨 전단 소속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웨인 E 마이어’(DDG 108)와 해상자위대 헬기 구축함 ‘이세’(DDH 182)등도 참가해 대열 확인과 통신 훈련, 승조원 교환 등을 수행함.
- 이는 지난 5일 베트남 중부 다낭에 칼빈슨 전단이 베트남전이 끝난 지 43년 만에 입항한 것과 함께 미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공동의 적’인 중국에 대한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으로 보임.

2018. 03. 29.

■ **中, 美301조 조사 정조준... “어떤 보복 옵션도 배제않겠다” 경고(연합뉴스)**

-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겨냥해 어떠한 보복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경고함.
- 가오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나설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중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해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함.
- 가오 대변인은 미·중 무역 마찰과 관련된 질문에는 “중국은 어떠한 무역보호주의

행동에도 대응할 저력과 자신이 있다”면서 “미국이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 고삐를 잡아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2018. 03. 25.

■ 日, 북미회담 조건으로 ‘중거리미사일·납치문제 해결’ 美에 제시(연합뉴스)

-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했던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미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5월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추가 전제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중거리미사일 포기 및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약속을 받도록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구체적으로 일본은 북미정상회담 전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일본에 도달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 포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수용,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화학무기 폐기 등을 북한에 약속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것으로 전해짐.
- 통신은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다음달 중순 방미 예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생각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나 미국측은 일본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내용을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짐.

2018. 03. 29.

■ 日 아소 부총리 “美와 양자협상 단호히 거부”(연합뉴스)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미국 정부가 최근 발동한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NHK가 29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열린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데 대해 “이것을 지렛대로 해 양국간 협상 이야기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함.
- 일본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유예 대상국에서 자국이 빠진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며 미국이 의욕을 보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라고 NHK는 전함.

■ **‘재팬패싱’ 관세폭탄에 아베, 美 달려가지만…미일외교 ‘먹구름’(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재팬 패싱’(일본 제외) 논란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폭탄’ 공격 속에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지만 이들 현안과 관련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음.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미일관계를 축으로 진행되던 아베 총리의 외교가 암운(暗雲)에 휩싸여 있다”며 “북한과 통상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결실이 나올지가 향후 미일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계획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임.

다. 미·러 관계

2018. 3. 26.

■ **트럼프, 미 주재 러 정보원 등 60명 추방…총영사관 폐쇄도 추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스파이 독살시도 사건과 관련,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 주재 러시아 정보요원 등 60명을 추방기로 함.
- 국무부는 이날 헤더 나이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화학무기 금지협정 및 국제법을 위반한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미 대사관의 러시아 관리 48명을 추방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소속 정보요원 12명에 대한 추방 절차도 시작했다”고 밝힘.
- 이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취한 첫 조치로,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돼 미·러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라. 중·일 관계

2018. 03. 25.

■ **“중일, 5월정상회담서 센카쿠 충돌방지용 핫라인 설치 합의”(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의 항공기와 함정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긴급 연락체계 운용에 정식 합의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전함.

- ‘해공연락메커니즘’으로 불리는 긴급 연락체계는 일본 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와 중국 해·공군 간부간의 핫라인 구축, 방위당국 국·과장급 등의 정기회의 개최, 양측 항공기나 함정이 근접할 경우 무선 주파수 및 영어로 교신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일본이 실효지배하지만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임.

■ 日, 中견제 아시아 군사영향력 확대…스리랑카軍 능력구축 지원(연합뉴스)

- 산케이에 따르면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 막료장(합참의장격)은 지난 8~9일 스리랑카를 방문해 군 관계자와 회담하고 일본의 자위대가 재해구조와 해양안보 등에 대해 스리랑카군의 능력을 높이는 ‘능력 구축 지원(capacity building)’을 지원하기로 함.
- ‘능력 구축 지원’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원을 파견하거나 상대국의 군 관계자를 초청해 다른 나라의 군사능력을 높이는 활동으로 일본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4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대해 능력 구축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군사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 전략인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Indo-Pacific)전략’과 관련한 ‘우군’을 늘리기 위한 것임.

2018. 03. 26.

■ 中언론 “日, 일대일로 협력 모색”…견원지간 밀착설 사실일까(연합뉴스)

- 일본이 무역 관계 등에서 전통적 우방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중국과의 긴장된 관계 개선을 위해 일대일로 구상에 협력하는 등 중국과 경제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함.
- 이에 대해 일본 외교관은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러한 회동 가능성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하며, “그것(일대일로)에 대한 아베 총리의 관심은 양국 관계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중요 사안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영유권 갈등, 과거사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안 등으로 경색된 양국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전망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관측됨.

2018. 03. 27.

■ **전쟁 반성 있었나…日, 육상자위대 총괄하는 통합사령부 신설(연합뉴스)**

- 일본 육상자위대의 통합사령부에 해당하는 ‘육상총대(總隊)’가 27일 발족됐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함.
- 그동안 육상자위대는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각각 자위함대, 항공총대를 각각 사령부로 둔 것과 달리 총괄 조직을 두지 않고 일본을 북부, 동북부, 동부, 중부, 서부 등 5개 지역으로 나눠 ‘방면대(方面隊)’라는 조직을 두고 지역별로 관할해왔음.
- 방위성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의 유사 사태 발생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수륙기동단을 새로 만들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투 능력을 높여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하려는 야욕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2018. 03. 28.

■ **아베 “김정은 방중 정보분석 중…중국에 설명 요구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배경 등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는 중”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NHK를 통해 중계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한 것은 보도를 통해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히며 “중국측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이 중국측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방중을 사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만 소외되는 ‘재팬 패싱’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임.

마. 중·러 관계

2018. 03. 28.

■ 중국 러시아, 유엔 예산 쥐어짜며 세계 인권수호 방해(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인권 보호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은밀한 전쟁을 수행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영국 진보 일간지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함.
- 신문은 유엔 주재 외교관과 인권 운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사무국의 예산을 다루는 제5위원회를 통해 인권 감시 예산을 삭감하고 유엔 사무총장실 인권 담당 고위직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함.
- 유엔은 사무총장실 직속으로 인권 담당 고위직을 임명했으나 제5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로비에 따라 이 인권 담당 고위직에게 지급할 예산을 삭감하며 인권 담당 고위직이 수행하는 인권 업무는 다른 부서들로 분산 배치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3.24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채택... 중국 반대(미국의소리)
	3.25	日, 북미회담조건으로 '중거리미사일·납치문제 해결' 美에 제시(연합뉴스)
	3.26	싱가포르 "북 국적자 노동허가 전원 취소"(자유아시아방송)
	3.27	트럼프, '북 인권 증진' 예산포함 일괄세출안 서명(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3.23	북주민, 비사회주의의 그루빠 단속강화로 공포감(자유아시아방송)
	3.24	北신문 "국제 인권기구, 인권유린 왕초 美장단에 춤 춰"(연합뉴스)
	3.25	北,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전면 배격"(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3.26	남북 적십자 대표, 홍콩서 열리는 적십자 회의 참석(자유아시아방송)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3.25	교도 "북한, '납치 가능성' 재일교포 1명 '평양에 있다' 인정"(연합뉴스)
	3.27	"북 여성, 도강 중 북한군에 피격 사망"(자유아시아방송)
	3.28	탈북자 7명 중국서 체포...강제복송 우려(미국의소리)
대북지원	3.27	FRC "예산 감소된 채 북 수해 복구 사업 완료"(자유아시아방송)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3. 24.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채택...중국 반대(미국의소리)

-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강조해 온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올해에도 표결 없이 채택됨. 북한이 식량보다 핵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을 지적했는데, 중국은 긴장 완화에 도움 될 게 없다며 이의를 제기함.
-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동의(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함.
-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명시함.
- 아울러 북한 정부에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특히 강제 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함.
- 아울러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함. 또한 북한이 자국민들의 식량 접근 문제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군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주의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이와 함께 유엔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중국 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상황이 더욱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임.

2018. 3. 25.

■ 日, 북미회담조건으로 ‘중거리미사일·납치문제 해결’ 美에 제시(연합뉴스)

-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했던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미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5월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추가 전제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중거리미사

- 일 포기 및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약속을 받도록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그러나 미국 측은 일본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내용을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짐.
 - 통신은 북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다음달 중순 방미 예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생각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25일 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설리번 국무 부장관 등과 만나 5쪽짜리 자료를 전달함.
 - 자료에는 북미정상회담 전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일본에 도달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 포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화학무기 폐기 등을 북한에 약속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8. 3. 26.

■ **싱가포르 “북 국적자 노동허가 전원 취소”(자유아시아방송)**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 노동자들의 노동허가(work pass)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힘.
- 26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싱가포르는 자국 내 북한 국적자의 모든 노동허가를 취소했고, 북한 국적자에 대한 새로운 노동허가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그러면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한명도 없다고 전함.
- 최근 싱가포르 당국은 유엔 보고서에 자국 기업들이 북한에 사치품을 팔았고, 이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13일 “유엔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지난 12일 영국 BBC방송이 입수해 보도한 유엔 보고서에는 싱가포르 기업 2곳과 다른 아시아 회사들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와인과 스피리츠(증류주) 등 사치품을 지난 7월까지 북한에 수출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음.

2018. 3. 27.

■ **트럼프, ‘북 인권 증진’ 예산포함 일괄세출안 서명(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인권유린 기록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산을 포함한 2018 일괄

세출안(Omnibus Spending Package)에 지난 23일 서명함.

-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2018일괄세출안에는 ‘국제방송운용(International Broadcasting Operations)’ 조항에 따라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함. 세출안은 또 ‘이주와 난민 보조(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 조항에 따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탈북자를 보호하는 활동 등 탈북자를 지원하도록 함.
- 세출안은 이어 미국 정부가 ‘경제지원금(Economic Support Fund)’과 ‘민주주의기금(Democracy Fund)’ 중 8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의 인권 증진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인권증진 활동에 사용될 예산은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에 의해 집행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3. 23.

■ 북주민, 비사회주의 그루빠 단속강화로 공포감(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 평양주민 소식통은 “비사그루빠 단속 때문에 현재 북조선 주민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할만큼 긴장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소식통은 “남조선 영상물이나 노래를 단속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길 가는 행인이나 여행자들의 보따리 검사, 여성들의 복장검사, 남성들의 두발과 언행에 대한 단속 등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사그루빠가 단속하고 있다”고 말함.
- 또 “보따리 검사에서 같은 물품이 3개 이상 나오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단속하고 여성들의 바지에 주름이 잡혀있지 않으면 바지폭이 좁은 쫄대바지라고 걸고 넘어진다”면서 “남자든 여자든 머리(두발)형태가 조금만 특이해도 자본주의 날라리라고 시비를 한다”고 지적함.
- 소식통은 이어서 “단속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얻어맞기 일쑤이고 껌죄까지 더해져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면서 “하찮은 문제로 단속에 걸리면 (노동)단련대 처분을 받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 수위가 단련대 3개월”이라고 전함.

2018. 3. 24.

■ **北신문 “국제 인권기구, 인권유린 왕초 美장단에 춤 춰”(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 다음 날인 24일 미국 주도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거듭 비난하며 이는 ‘제도 전복’이 목적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반(反)공화국 인권 소동은 천만번 부당하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미국은) 역지를 써서라도 우리의 인권 문제를 국제화하고 그것을 구실로 온 세계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최대의 압박’을 가해보자는 것”이라며 “궁극에는 우리의 제도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유엔을 무대로 한 북한인권 논의에 대해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 전복을 위한 수단으로 써먹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 그러면서 “국제 인권기구가 인권유린의 왕초, 세계 최대의 인권 범죄국인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주권국가에 대한 자주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임.
- 신문은 미국의 인권공세가 “체질적인 반(反)공화국 적대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라며 “미국의 대조선(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강변함.

2018. 3. 25.

■ **北,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전면 배격”(연합뉴스)**

-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 주제 북한대표부는 유엔인권이사회 (UNHRC)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한 결의’라고 비난하며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대표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발표한 공보문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립 압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한 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함.
- 북한대표부는 또 “결의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또 하나의 범죄적 문서장이며 미국이 우리 제도전복을 노리고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압력도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어 “우리는 우리 인민 자신이 신념으로 선택하고 공고 발전시켜온 우리식 사회주의와 참다운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3. 26.

■ 남북 적십자 대표, 홍콩서 열리는 적십자회의 참석(자유아시아방송)

- 박경서 대한적십자 회장이 동아시아 지역 각국의 적십자 대표들이 모이는 홍콩 다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힘. 이 다자회의에는 북한의 적십자 대표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짐.
- 동아시아 적십자 대표들이 모이는 ‘2018 동아시아 적십자사 지도자회의’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됨. 이번 다자 회의에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적십자 대표가 참석해 재난 위험 경감, 청소년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함.
- 박경서 대한적십자 회장은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홍콩에서 열리는 다자회의에서 북한 적십자와 공식 반, 비공식 반으로 회의할 것”이라고 밝힘.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측과 별도의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8. 3. 25.

■ 교도 “북한, ‘납치 가능성’ 재일교포 1명 ‘평양에 있다’ 인정”(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재일교포 1명에 대해 북한이 ‘북한에 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2014년 일본과 접촉했을 때 지난 1979년 11월 실종됐던 가네다 다쓰미쓰(金田龍光·실종당시 26) 씨가 ‘북한의 평양에 입국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함.
- 북한이 가네다 씨의 평양 입국 사실을 인정한 시점은 일본 정부가 남북 피해자로 보고 있는 다나카 미노루(田中實·실종 당시 28세)에 대해 ‘북한 입국’을 인정했던 때와 같음.
- 두 사람은 같은 보육원 출신 친구이자 효고(兵庫)현 고베(神戸)시의 라면집에서

- 일하던 동료다. 재일한국인인 가네다씨는 다나카 씨를 만나러 도쿄에 갔다가 실종됨.
- 다나카 씨는 1년 전인 1978년 오스트리아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춤. 일본 정부는 출국 기록이 있는 다나카씨는 ‘납치피해자’로 봤지만, 가네다 씨는 출국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특정실종자’로 분류했었음. 일본 정부는 17명을 납치피해자로, 883명을 특정실종자로 분류하고 있음.
 - 보도가 사실이라면 생존해 있거나 일본으로 송환되지 않은 납치피해자가 2명이 있는 것으로, 이는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접촉을 벌이고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2018. 3. 27.

■ “북 여성, 도강 중 북한군에 피격 사망”(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양강도 혜산시 인근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하려던 북한 여성이 압록강을 건너던 중 북한 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공개됨. 탈북자 박미영 씨(가명)가 지난 22일, 중국에 살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동영상임. 국경 경비가 강화됐지만, 탈북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 동영상에는 압록강 얼음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고, 총을 멘 군인들이 몰려 있으며 그 옆에는 여성 한 명이 울부짖으며 얼음 위를 뒹굴고, 북한군이 누워 있던 사람을 일으켜 보려 하지만, 축 처진 시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놓아 버림. 딸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강 건너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임.
- 동영상을 제공한 박 씨는 도강하던 모녀 중 어머니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았고, 딸이 그 옆에서 오열하는 장면이라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장함.

2018. 3. 28.

■ 탈북자 7명 중국서 체포...강제복송 우려(미국의소리)

- 중국에서 최근 탈북자 7명이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살던 탈북자들이 최근 한국으로 가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됨. 인권단체와 가족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됐다고 말함. “갑자기 저녁에 경비가 강화되면서 선양 역에서 일부 붙들렸고요, 또 쿤밍까지 다 가서 잡히게 된 거죠.”라고 함. 김 목사는 선양 역에서 여성 3명이 체포됐고, 쿤밍으로 가던

기차 안에서 여성 2명과 어린이 2명이 체포됐다고 말함. 그러면서, 선양 역에서 다른 탈북자 4명은 체포를 피해 달아났다고 덧붙임.

- 김 목사에 따르면 체포된 여성들은 중국에 입국한 지 7년에서 10년 정도 됐으며, 대부분 북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국에 팔려온 사람들임. 김 목사는 현재 이들 탈북자들과의 연락이 끊어졌다며, 구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함.

5. 대북지원

2018. 3. 27.

■ IFRC “예산 감소된 채 북 수해 복구 사업 완료”(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IFRC)는 지난 2016년 시작했던 북한 수해 복구 사업이 긴급 구호예산 모금 부진으로 전체 목표 모금액 중 약 33%에 불과한 예산으로 완료됐다고 밝힘.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지난 2016년 8월29일부터 31일까지 발생했던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사업이 완료됐다고 26일 발표함.
- ‘긴급구호 사업 최종 보고서: 북한 함경북도 홍수(Emergency appeal final report)’를 통해 “북한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북한 수재민 11만 명, 2만 7천 50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힘.
- 국제사회의 기금 모금 부족으로 당초 제시됐던 긴급 구호 목표 예산인 약1천600만 달러의 약 33%인 약 500여 만 달러의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설명함. 당초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2016년 9월 함경북도 일대 북한 주민 33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예산을 약 1천60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으로 예산이 축소됨.
-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홍수 피해가 가장 심한 함경북도에서 2016년 9월2일에 시작돼 지난해 12월31일 완료됨.